# 실천신앙의 진수, 무대기피증

## (사무엘하 22:1~20)

1.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2.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3.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4.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5.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6.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7.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8.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9.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10.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실천 신앙의 진수, 무대기피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실천 신앙의 진수, 무대기피증'

30여 년 전에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 군둘라 야노비츠(Gundula Janowitz)가 내한공연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공연을 위한 리허설을 한 뒤 무대로 나가기 전에 포도주를 한 병 반이나 마셨다고 합니다. 또한 25년 전에 서울호암아트홀에서 공연을 했던 샹송 가수 줄리엣 그렛코(juliette greco)는 코냑 한 병을 다 마시고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외에도 베를린 필하모닉의 한 호른 주자는 맥주를 두잔 정도 마시고 나면 연주할 때 고음 내기가 아주 쉽다고 했는데 무대공포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나서야 될 상황이 될 때면 긴장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무대에 올라서는 것이 직업인 연예인들도 익숙해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연주나 공연을 할수록 무대공포증이 심해지는 경우에 클래식연주자들 25~30%가 무대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거나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무대에서의 움직임이 일상적인 상황이 될 때에 진정한 연기자가 되는 것이고 무대를 즐길 수 있다면 도사가 된 것인데, 그러나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무대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고 일상적인 상황과 다를 바 없이 되었다면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론으로만 알거나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과 관련된 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 신앙의 진수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드러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자 가장 본질적인 모습으로서의 신앙은 무대공포증 정도가 아니라 무대기피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실천 신앙의 진수입니다.

사람은 에덴에서 최초의 삶의 무대를 받았습니다. 이 삶의 현장을 무대로 비유해봅니다. 에덴에서의 삶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제는 있었다가 오늘은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날마다 새로운 기쁨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대기피증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나무의 장치를 두셨고, 이런 색이 바래지지 않는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 아담과 하와는 무대기피증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선악과나무를 따먹지 않는 것은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게 사업의 과제가 주어졌다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으므로 사업에 대한 판단능력이 발동되지 않는 것이고 사업이라는 삶의 무대에 올라서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자녀에 대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은 엄마나 아빠의 역할로 무대에 올라서지 않는 것입니다.
에덴의 조건은 무대공포증을 극복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맡겨진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서 아예 무대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고 그 무대를 기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시들지 않는 기쁨의 삶이 주어지고 마음에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로 인해서 삶의 무대는 너무나 편안한 일상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공포증이라도 남아있으면 좋으련만 부모로서 자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데 무슨 공포가 필요한가를 의문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자식 사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바라볼 때에 남편의 역할을 하는 무대가 두려워야 합니다. 아예 남편이라는 무대를 기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내와의 관계가 에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내와 같이 있을 때에 편안하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또 여자가 아내가 되는 일에서도 아무 두려움이 없고 아내라는 삶의 무대에 올라서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해놓은 일인 것입니다. 에덴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부분에서 무대기피증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결론짓는 이 노래는 하나님에 관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이론적으로 알아낸 하나님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누구보다도 치열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의 현장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사람으로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해보자면 1절은 노래의 시작을 알리고 있고, 2~7절까지 무대기피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9절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무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데, 무대기피증으로 도망치자 내 삶의 무대에 하나님이 오르셔서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의 삶이 에덴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무조건 삶의 현장으로부터 도망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게 일어나야 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세상에서 도망가는 것뿐인데 우리의 세계관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몸이 도망가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윗의 글과 시편을 읽을 때에 항상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2~3절에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합니다.
'나의 반석'은 가파른 암벽위의 처소를 말하는 것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을 뜻합니다. '나의 요새'는 높은 곳을 말하고 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나오는데 거대한 바위를 말합니다.
'반석, 요새, 내가 피할 나의 반석, 방패, 망대, 구원의 뿔, 피난처, 나의 구원자'로 계속해서 도망가고 피난 가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내일 볼 후반부 35절, 38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기 위한 첫 단계가 도망가는 것이고 무조건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실제로 몸이 피난을 가기도 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마음이 피난가는 것을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피난을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제 본 오감마케팅과 오감타기팅에 대한 발전적인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염두에 두면 오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무조건 도망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오감과 묶여 있는 상태에서 다섯 개의 관문을 통해 내용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 5~6절의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다윗은 오감을 통해 마음에 들어와서 묶는 것들을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로 보았던 것인데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감의 관문을 통해 내 마음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불의로 끌고 가는 어마어마한 영향력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럴 때에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께로 도망갔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지 못하고 오감에 묶여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망의 물결이고 불의의 창수에 빠진 것이며 스올의 줄이 두르고 사망의 올무에 묶인 것으로 보았던 것인데 다윗은 위대하지만 대단한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을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풍전등화의 나라의 위기를 극복했기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식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정복으로 인한 영토 확장에서 치적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세계관을 갖고 있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삶의 무대공포증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무대기피증을 드러낸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었을 때에도, 골리앗 앞에서도, 가족 앞에서도, 여자를 앞두고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밧세바 앞에서 하나님께 피신하지 못했는데 밧세바가 시각을 통해서 들어올 때에 사망의 물결이고 불의의 창수가 되었고 스올의 줄이 두르고 사망의 올무의 그 어마어마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시각과 청각과 촉각을 통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통째로 사로잡는 사망의 물결이 되고 불의의 창수가 되고 스올의 밧줄이 되고 사망의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하고 그럴 때의 삶이 에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내가 떠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치 보는 삶이 되고 기쁨이 없는 지옥이 됩니다. 내가 사장으로 지켜야 할 사업에서 도망치고, 과장으로서 해야 할 일에서 도망쳐서 하나님께 머문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말로만 들어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조상으로부터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살아서 활동하시더라는 얘기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8~9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라고 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는 것은 내가 도망친 삶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므로, 이 세상에서 절대불변으로 보이던 것들조차 초개와 같이 무너져서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실 때에는 인간들의 생각 속에서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활동하실 때는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무엇이냐를 말씀해주고 있고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를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에서 노래하고 있습

니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재료가 마음에 닿기 전에 마음이 도망쳐야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도망을 우리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복음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코로 맡고 피부로 느끼기 전에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고 있다면, 내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피난 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고 눈으로는 과장님으로서 해야 할 일을 봅니다.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면서 자식을 보고 아내와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오늘 8~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당신의 활동무대로 삼으셔서 역사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로 전개되는 노래에 대해서는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단히 경험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자는 시간까지도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십자가를 본다면 나의 마음은 무조건 하나님께로 피난을 가게 되고, 나의 삶의 텅 빈 현장은 하나님의 활동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가 직접 행하는 이 세상의 일이 있다면 죄악입니다. 이 세상일은 단 한 건이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일들이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도망가야 하고, 도망가기 위해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무대기피증을 위하여 마음이 십자가에 꽁꽁 묶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